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3년도 제29호

### [수요광장칼럼]

#### 정미란 차관 임명과 스포츠계 성평등 선진화 촉구

이현서 아주대학교스포츠레저학과 교수

### 2024 파리 올림픽

#### 바흐 IOC 위원장 “러시아의 파리 올림픽 출전 최종 결정, 아직 일러”

이상철 뉴스기자

### 대학축구연맹 제18회 1,2학년 대학축구대회

#### 선수 자격 제한하자니, 인권 침해 요소...대학축구에 ‘0-29, 0-31’ 또 나온다

박준범 스포츠서울기자

###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

#### “역학조사 동선 누락” 2021년 NC 선수들 ‘무혐의’

배중현 일간스포츠기자

### 2023 후쿠오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 세계선수권 결승에 한국 선수가 둘...황선우-이호준, 한국 수영 역사 새로 썼다

이은경 일간스포츠기자

### 코리아오픈배드민턴선수권대회

#### 안세영, 코리아오픈 2연패...한국 선수로는 방수현 이후 29년만

홍규빈 연합뉴스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심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대한학교체육회 발족식

- 체육교육 •
- 스포츠클럽 •
- 학교운동부 •



## ..... 학교체육통합의 시작 .....

2023년 7월 28일(금) 오후 5시 30분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311호

• 발제 이병호(스포츠인권연구소 대한학교체육회 준비팀)



## 장미란 차관 임명과 스포츠계 성평등 선진화 촉구

지난 6월29일에 정부는 15명 장차관급 개각을 단행하였다. 가장 주목받은 인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임명된 장미란 교수였다. 장미란 교수는 역도선수로서 2004 아테네 올림픽에서 은메달,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2012 런던 올림픽에서 4위에 그쳤으나 동메달 선수가 약물 복용 문제로 자격이 박탈되어 대신 동메달을 수상하여 연속 3회 올림픽 메달을 수상한 스포츠 영웅이다. 장 교수는 은퇴 후 학업을 지속하여 2016년에 용인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이런 경력을 가진 장 교수의 차관 임명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도 있으나 부정적 평가도 있다. 부정적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선수 출신 차관이 스포츠뿐만 아니라 관광과 국민소통까지 아우르는 업무를 해낼 것인가 우려하는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과 현 정부가 리더십이나 업무 수행 능력을 따지지 않고 스포츠 영웅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임명의 불공정성'을 주장한다.

문화부 제2차관 장미란 임명 주목  
용인대 교수·복지사업 운영 10년  
'역량 의구심' 선수출신 편견일뿐

장 차관 임명에 관한 부정적 평가에 나타나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짚고자 한다. 먼저 '운동선수 출신에 대한 편견'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제1차관과 제2차관을 따로 두기 시작한 노무현 정부부터 현재까지 역대 제2차관 17인은 언론, 스포츠, 관광 분야 전문가이거나 정부 부처에서 경력을 쌓은 행정 전문가이다. 이 중 누구도 스포츠, 관광, 국민소통의 전체 영역을 잘 아는 전문가가 없는데 유독 장 교수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운동선수 출신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체육특기자제도의 부정적 관행으로 인하여 운동선수가 학업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운동선수 출신은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편견은 그 뿌리가 깊다. 그러나 장 선생이 15세에 역도를 시작, 21세부터 29세까지 올림픽에서 세계 최고가 된 것은 지덕체(智德體) 중에 '체'만 치중하여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 선생이 은퇴 후에 공부하여 교수가 되고 장미란재단을 운영하여 체육복지사업을 10여 년 이상 지속한 사업가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선수' 출신이라는 꼬리표만 보고 업무 수행 역량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

두 번째, 리더십 부족에도 불구하고 장 교수를 차관으로 임명했다는 불공정성 주장은 '스포츠계 성불평등 구조'를 간과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중에서 최초 운동선수 출신은 2013년에 임명된 박종길 차관이다. 남성인 박 차관이 임명되었을 때 리더십과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지 않았지만 여성인 최윤희 차관과 장 차관의 경우 리더십과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지적이 계속 등장한다. 박 차관은 사격선수로서 1974년부터 1986년까지 아시안게임에서 다수의 메달을 수상했고, 선수 은퇴 후에 광운대 사격부 감독, 국가대표팀 감독을 거쳐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부위원장, 대한체육회 태릉선수촌장, 2012 런던올림픽 선수단 총감독을 맡고 2013년에 차관이 되었다. 남성 선수 출신인 박 차관의 이력과 여성 선수 출신의 최 차관과 장 차관의 경력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박 차관이 선수, 감독, 대한체육회 임원의 순서로 경력을 차근차근 쌓은 것에 비교해서 최 차관과 장 차관은 스포츠 조직의 리더로서 활동한 경력이 미미하다. 스포츠계에서 리더 경력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장 교수를 스포츠계 최고 조직인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깜짝 인사'라느니 '스포츠 영웅의 정치적 소비'라는 논란이 나오는 것이다.

대한체육회 임원 남녀비율 8대 2  
리더십 지적, 성불평등 구조 간과

그러나 여성 선수 출신인 장 차관이 스포츠계 조직에서 리더십을 충분히 구축하지 못한 것을 개인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다. 여성신문이 2021년 3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역대 올림픽 메달 수상자 남녀 선수 비율은 58대 42인데 대한체육회의 남녀 임원 비율은 81대 19라고 한다. 여성 선수 출신의 체육인을 차관으로 임명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판하기 전에, 여성 체육인도 스포츠계에서 리더십과 업무 수행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성평등적 구조로 개선하는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

/이현서 아주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 바흐 IOC 위원장 “러시아의 파리 올림픽 출전 최종 결정, 아직 일러”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러시아와 벨라루스 출신 선수들의 2024 파리 올림픽 출전 여부에 대해 심사숙고한 뒤 최종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바흐 IOC 위원장은 19일(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화상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현지시간으로 내년 7월26일 개막하는 2024 파리 올림픽이 다음주 개막 1년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는 걸 기념해 마련됐다.

바흐 위원장은 세계 각국의 취재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된 내용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파리 올림픽 출전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바흐 위원장은 "우리는 각국 정부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출신 선수들을 처벌해선 안 되는 책임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현재 러시아와 벨라루스 출신 선수들의 파리 올림픽 출전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앞서 IOC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제외한 총 203개국에 파리 올림픽 공식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이 개인 자격이자 중립국 소속으로 파리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IOC는 러시아 벨라루스 선수들이 파리 올림픽 종목별 예선에 참가할 수 있도록 촉구했지만 이들의 국제대회 참가 여부는 각 종목별 국제스포츠단체(IF)가 최종 결정한다.


다만 스포츠계는 여전히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구제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다. 우크라이나 등 다른 국가의 반발도 거세며, 일부 나라들은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바흐 위원장은 "우리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파리 올림픽 출전에 대한 결정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가 되면 충분한 재량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얼마나 잘 행동하는지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는 IOC의 최종 결정을 좌우할 핵심 요소"라고 덧붙였다.

바흐 위원장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권리가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책임이 있는 러시아 정부에 대한 제재를 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권도 옹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흐 위원장은 "IOC의 초점은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가 아니라 선수들이 경기에서 잘 뛸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경기장의 상황, 경기 규칙 정비 등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선수 자격 제한하자니, 인권침해요소... 대학축구에 '0-29, 0-31' 또 나온다, 무엇이 문제인가

'0-29, 0-31'이라는 점수가 또 나올 수 있다.

16일 결승전을 끝으로 막을 내린 제18회 1,2학년 대학축구대회 백두대간. 조별리그 예선에서는 예원예술대가 연이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예원예술대는 구미대와 아주대를 만나 연달아 0-29로 패했다.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대구대전에서는 0-31로 패했다. 예원예술대는 3전 전패로 탈락했는데, 3경기에서 89실점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

예원예술대는 15명의 선수를 등록하고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 첫 경기 구미대와의 경기에선 10명이 선발 출전했다. 부상 이슈까지 겹쳤다. 아주대전에는 8명이 선발 출전했는데 후반에 부상자 2명이 발생해 몰수 패가 선언됐다. 규정상 7명 미만이면 경기 진행이 불가하다. 대구대와 경기에서도 7명이 선발로 나섰다가 부상자가 또 생겨 후반전은 치르지도 못했다.

예원예술대는 이번 대회에 선수가 아닌 스포츠과학과 일반 학생들로 선수단을 꾸렸다. 이 부분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선수가 아니더라도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최소 출전 신청 인원 15명만 채우면 참가 자격을 얻는다.

대학축구연맹 주관 대회는 U리그와 달리 성적을 통해 조가 나뉘지 않는다. 다만 등록 팀은 1년에 최소 한 번은 협회가 승인한 대회에 출전해야 한다. 1개 대회에도 나서지 않으면 다음해 선수 등록은 물론 팀 해체까지 이어질 수 있다. 예원예술대가 일반 학생들로 구성해 이번 대회에 출전한 이유다. 대학축구연맹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아직 뚜렷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고민에 빠졌다. 임의로 대학축구연맹의 규정을 바꿀 수도 없기 때문이다.

대학축구연맹 변석화 회장은 대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도 이러한 결과가 또 나올 수 있다. '이게 무슨 대학축구냐'고 좋지 않게 보는 시각도 알고 있다. 다만 규정대로 진행했음에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 셈이다. 일반 학생도 상대팀도 결국 피해를 본 것 아니겠나.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이를 보완하려면 고등학교 때까지 선수로 뛴 경우 또는 선수 등록 1년 이상으로 출전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대회가 마무리 됐으나 이사회를 통해 해결법을 논의해보겠다"고 설명했다.

# “역학조사 동선 누락” 2021년 NC 선수들 ‘무혐의’

지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됐던 프로야구 선수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 결과, 박석민과 권희동(이상 NC 다이노스) 이명기(한화 이글스)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받았다. 이들은 NC에서 뛰던 2021년 7월, 팀 동료 박민우와 함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원정 숙소에서 일반인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파문이 일었다.

이후 원정 숙소를 관할하는 강남구청이 '초기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누락했다'며 선수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수들이 동선이 대해 거짓말했다는 게 요지였다. 결국 박민우를 빼 세 선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도쿄 올림픽 예비엔트리에 포함됐던 박민우만 백신 접종 완료자로 역학 조사 대상자가 아니었다. NC는 사안에 책임을 지고 황순현 대표이사과 김종문 단장을 비롯한 구단 수뇌부가 사퇴하는 등 홍역을 앓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논란 뒤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선수 모두에게 72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NC도 구단 징계위원회를 통해 술자리를 주도한 박석민에게 50경기, 나머지 세 선수에게 각각 25경기 출전 정지를 추가했다. 그런데 검찰 수사가 좀처럼 종결되지 않았다.

수사 발표를 기다리던 NC는 지난해 5월 징계를 마친 박민우와 권희동, 이명기를 1군에 등록했다. 6월에는 박석민까지 그라운드에 복귀했다. 사안이 종결되지 않아 구단의 부담이 컸지만,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당시 NC 고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완료됐다'는 내용을 들은 건 없다"고 답답해했다. 이후에도 검찰 수사 발표 소식은 들리지 않았고 결국 두 번째 해를 넘겼다. 그사이 지난 2월 이명기가 한화로 이적했다.

검찰의 통보는 문자 메시지로 이뤄졌다. 당시 방역수칙을 어겼지만,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게 요지였다. 경찰이 수사를 의뢰한 시점부터 무려 22개월이 걸렸다. "선수들이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수사 의뢰의 결론은 '무혐의'였다.

# 세계선수권 결승에 한국 선수가 둘... 황선우-이호준, 한국 수영 역사 새로 썼다

한국 수영이 뜻깊은 신기록을 세웠다.

황선우(20·강원특별자치도청)와 이호준(22·대구광역시청)이 한국 수영 경영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 단일 종목 결승에 '동반 진출'했다.

황선우는 24일 일본 후쿠오카 마린메세 후쿠오카홀에서 열린 2023 국제수영연맹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영 남자 자유형 200m 준결승에서 1분45초07의 기록으로 1조 1위, 전체 3위로 8명이 겨루는 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 동반 진출한 이호준은 2조 레이스에서 1분45초93으로 조 3위를 기록했다. 이호준은 전체 6위로 결승행에 성공했다.

이날 오전 열린 예선에서 황선우는 페이스 조절에 실수를 저질러 1분46초69로 간신히 준결승에 올랐다. 그러나 준결승에서는 이런 실수를 깨끗하게 털어내며 제 기량을 선보였다. 황선우는 준결승에서 초반부터 페이스를 올려 마지막까지 처지지 않았다.

이호준은 준결승 100m 지점을 턴할 때 7위였지만, 후반 100m에서 막판 스피트를 올리며 결승행에 성공했다.

황선우는 지난해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 자유형 200m에서 1분44초47의 한국 신기록으로 은메달을 따냈다. 25일 열리는 이 종목 결승에서 한국 수영 사상 첫 세계선수권 2개 대회 연속 메달에 도전한다.

부다페스트 남자 자유형 200m 우승자 다비드 포포비치(루마니아)는 2조에서 1분44초70으로 1위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황선우와 단거리 경쟁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중국 판잔러는 준결승에서 1분46초05로 공동 10위에 그쳐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 안세영, 코리아오픈 2연패... 한국 선수로는 방수현 이후 29년만

한국 여자 배드민턴의 간판 안세영(삼성생명)이 코리아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를 2년 연속 제패했다.

안세영은 23일 전남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세계 4위 타이쯔잉(대만)을 2-0(21-9 21-15)으로 제압했다.

지난해 대회에서 7년 만에 여자 단식 우승컵을 한국으로 가져왔던 안세영은 올해에도 우승에 성공했다.

한국 선수의 여자 단식 2연패는 1993년, 1994년에 우승한 방수현 이후 29년 만이다. 방수현은 1996년에도 우승했다.

2연패 자체는 2000년, 2001년에 우승한 카밀라 마르틴(덴마크) 이후 22년 만이다.

이로써 안세영은 올해 국제대회에서 6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세영은 1세트부터 타이쯔잉을 앞뒤로 흔들며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나갔다.

1-1로 맞선 초반에 인·아웃 챌린지에 성공하는 등 전날보다 코트 적응이 완벽해진 모습이었다.

안세영이 5연속 득점으로 10-3으로 달아나자 타이쯔잉은 연거푸 범실을 내며 자멸했다.

승기를 잡은 안세영은 2세트에서 여유가 느껴질 정도였다.

안세영은 10-5에서 과감한 대각 공격을 성공시켜 여유 있게 휴식 시간을 맞았다.

12-5에서는 셔틀콕이 머리 뒤 왼쪽으로 날아가자 빙글 돌면서 손목 힘을 이용해 백핸드로 받아냈다.

잠시 추격을 허용한 20-15, 안세영은 강력한 푸시 공격으로 우승을 확정 지었다.

경기가 38분 만에 끝난 압승이었다. 타이쯔잉과의 상대 전적은 7승 2패로 늘렸다.

세계랭킹 3위 김소영(인천국제공항)-공희용(전북은행)은 이날 여자복식 결승전에서 세계 1위 천칭천-자이판(중국)에게 1-2(10-21 21-17 7-21)로 패했다.

더블 스코어로 첫 세트를 내준 김소영-공희용은 2세트에 전열을 재정비했다.

1세트 때보다 스윙 감이 올라오면서 긴 랠리를 이어갈 수 있었고 상대 실수를 끌어냈다.

접전을 이어가던 15-13, 중국팀 공격이 네트에 걸려 이날 처음 석 점 차 리드를 가져왔다.

17-15에서는 샷을 38차례 주고받는 긴 랠리에서 자이판의 클리어를 김소영이 강한 스매시로 받아쳤다.

상대 범실로 세트 포인트를 쌓은 한국팀은 공희용의 공격으로 승부를 3세트로 끌고 갔다.

그러나 3세트는 1세트와 비슷한 흐름으로 흘렀다.

한국팀은 3-5에서 공격 실수를 시작으로 6연속 실점을 하고 8점 뒤진 채로 휴식 시간을 맞았다.

강한 스윙을 휘둘러도 중국팀의 역습에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별다른 추격의 발판을 찾지 못한 채 3세트에서 14점 차로 패했다.

자료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3028351007?input=1195m>



# 주간 스포츠 소식

디오픈 준우승 김주형, 세계랭킹 17위... 한국 선수 최고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81055&plink=ORI&cooper=NAVER](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81055&plink=ORI&cooper=NAVER)

트랜스젠더 여성, 사이클 출전 금지... 우리나라는?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792>

대한체육회, 청두하계세계대학대회 한국 선수단 결단식 개최

<https://www.starnewskorea.com/stview.php?no=2023071915093737281>

김연경 훈련 합류 흥국생명 선수단, 모기업 선발 장학생과 만남

<https://www.inews24.com/view/1615735>

'VNL 전패' 여자배구 대표팀 내달 6일 재소집, 亞 세계선수권 대비 담금질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307240284>

김우민, 세계선수권 남자 자유형 400m 결승 3분43초92로 5위(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3053151007?input=1195m>

한국, 아시아 여자청소년 핸드볼선수권 결승서 일본에 석패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4155900007?input=1195m>

“국가대표 야구 선수로서” 롯데 박세웅, 경북 예천군 위해 5000만원 기탁

[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307241406003&sec\\_id=510201&pt=nv](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307241406003&sec_id=510201&pt=nv)

피겨 셋별 신지아, 주니어 세계선수권 선발전 우승

<https://www.nocutnews.co.kr/news/5982689>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